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내걸고 출발한 민선6기 전주시의 지난 2년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현안들을 풀어내는 시기였다. 전주를 파업도시로 낙인찍게 했던 시내버스 문제는 물론 교도소 이전,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전라강 영 복원, 선미촌 등의 현안들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나아가, 2017 U-20월드컵 개최도시·개막전 유치와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 등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민복지 향상 · 일자리 도시 구축 · 생태도시 조성

▲지역의 묵은 현안 해결을 통한 성장발판 마련

전주시는 우선 시민의 이동권, 생존권과 직결된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민선6기 출범 1개월 만에 해결했다. 이어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사·민·정 등 33명으로 구성된 '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전국 최초 운영, 전주·원주 버스요금 단일화, 시민 중심의 노선개편 추진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매년 시내버스 파업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전주가 2015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버스분야 2위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도 현 위치에서 뒤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역역 중이다. 이전부지는 평화동 자치마을 부근, 28만4424㎡ 규모다. 현 교도소는 감옥호텔, 예술인 레지던스 등 생활·문화시설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시는 또 역사적 가치와 문화, 자존감 회복을 통해 옛 전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조선시대 호남의 상징인 전라강영 복원을 본격화했다. 현재 구 도청사 본관, 의회 건물, 경찰청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강영은 오는 2018년까지 선화당과 내아, 관공각, 비장청, 연신당, 내산문 등 6개 건물이 복원된다.

나아가, 50년 전부터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주변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기능전환사업이 시작됐다. 이는 선미촌을 문화재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거점 조성 공간 마련을 위한 페·공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을 우선하는 복지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는 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효성부도입대아파트의 임대세대인 255세대의 입주인이 주거불안에 떨고 있을 때 LH공사에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제공 급하는 등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주민주도의 동네복지체계도 구축했다. 평화1동, 서신동, 삼천2동, 인후3동, 송천2동, 동산동을 동네복지 동으로 지정하

시내버스 파업 등 현안 문제 해결 성장 발판 마련 '엄마의 밥상' · 폐지수거 어르신 생계비 지원 등 사람우선

고,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복지플래너가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매일 아침 280명의 아이들을 찾아가고 있고, '지혜의 반찬'을 통한 도시지원으로 600명의 아이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있다. 전국 최초로 폐지수거 어르신 17명에게 월 1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고 40명의 어르신의 경우 정밀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수기준의 89%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94명(56개소)의 보수를 100% 지급하고, 폐쇄 결정된 전주시립원과 자립인애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129명 모두를 탈 시설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겼다. 나아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와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위한 열린교육바우처, 단칸방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청년건강검진, 육아종합지원센터, 365일 24시간 아동친화센터 운영, 100세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위생용품 지원 등 사람을 우선하는 전주형 복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활기찬 일자리 도시 구축

전주시는 미래먹거리산업인 드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에 선정돼 완산체력공원 내에 시범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드론산업 중심지의 반열에 올랐다. 이와 함께,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가 문을 열었고, 지난해 11월 지역 IT산업 육성을 위한 K-ICT 디바이스랩을 개소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제품화 지원, 시장진출 등 지역 ICT산업을 이끌고 있다.

시는 또 탄소밸리 조성 R&D기반 구축사업,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 중인 전주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건립과 신상품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탄소산업 거점도시 성장 발

판도 다졌다. 나아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부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 신중앙·모래내 시장의 경우 문화관광형시장, 서부시장은 골목형시장 등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국(局)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기본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전주형 공동체 브랜드인 온두레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할 밥상을 위하여 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키워가며 독립경제도시 전주의 먹거리 지역생산-지역소비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는 등 대도시 먹거리 전략인 '전주푸드 2025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특별시 토대 마련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문화를 3대 핵심 가치에 포함시킨 가운데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했고 문화자원을 보전·관리했으며,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문화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지수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 대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2017 FIFA U-20월드컵 유치와 함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등 문화 영토를 세계로 넓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주에서는 대회의 꽃인 개막전을 포함해 최대 9경기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의 저력을 재차 인정받은 전주는 한옥마을이 아닌 전주시 전역을 국제슬로시티로 확대, 인증받는 성과도 일궈냈다.

시는 또 한옥마을 상설공연과 풍납문의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문화콘텐츠 확충을 통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고 있다. 아울러, 풍납문과 전라강영, 풍패지관에 이르는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거리가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덕진공원도 총 88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나아가, 완산공원과 완산도서관, 곤지산 일대에 9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와 함께, 팔복동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내년까지 문화예술공장을 조성해 문화예술창작의 공간으로 시민과 예술인에게 제공하고, 2018년 완료될 목표로 철로변 녹지 조성과 문화공원 조성 등 철길명소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전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자연과 사람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거듭나는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전주동물원은 물새장과 사자·호랑이사 환경개선공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동물병원 신축과 곰사 개선 등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침체에 빠진 아중호수 주변을 호반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중호수생태공원이 조성되며, 기린공원에 전주 물고기들과 땀방이가 살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사업도 완료했다.

시는 또 전주의 첫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 사업(2015~2017년, 6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천 소풍길(2015~2017년, 50억원), 전주명품나들목(2015~2018년, 20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현대시설로 신축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모든 관련 사업 및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생태도시 비전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전주다운 도시재생 추진에도 매진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노송동 등 원도심 일대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팔복 새마을마을에 국비 50억원 등 총 72억원을 투입하고, 승암 새마을마을에 국비를 포함해 총 40억원을 들여 각각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개발소외지역이었던 동산동도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김영재 기자

▶ 김승수 시장 업적



저소득층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동네복지 · 청년건강검진 등 서민정책 잇따라 추진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 후 2년 동안 묵심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현안들을 보다 강단 있게 헤쳐가며 '조용한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내버스 파업 해결과 예코시티 분양가 인하, 전주 KCC 이지스 농구단 이전 철회, 선미촌의 문화재사업, 교도소 이전,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김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1개월 만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의 종지부를 찍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 현장의 중심에서 시민의 이동권,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남다른 소신과 각오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1972년 건립된 이후 노후화되면서 10년 넘게 이전 대상지를 찾지 못했던 전주교도소의 경우 현 위치보다 300m가량 동쪽 뒤편으로 옮겨 자치마을 일대에 신속(Kick Back 방식)기로 결정했다.

김 시장의 승부사 기질은 KCC 이지스 농구단을 잔류시키는 과정에서도 돋보였다. KCC 농구단의 수월이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김 시장은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와 KBL, KCC그룹 정상영 회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끈질긴 설득 끝에 "전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 시장은 99% 이전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KCC그룹 정 회장과 장시간 대화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권을 넓혀 전주를 신명나는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하면서 정 회장의 마음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철거사업을 통해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상태이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오히려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기업과의 고독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흑석골 등 효성부도입대아파트를 국민임대대로 전환하며,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 것도 김 시장의 조용한 승부사 기질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강인한 목심이 내재된 조용한 승부사 기질 속에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이어 지혜의 반찬, 저소득층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동네복지, 청년건강검진,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김승수 서민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한 민선6기 전주시정은 앞으로도 따뜻하지만 담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전주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시민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